

27**산란계의 적절한 사육밀도를 설명해 주세요.**

산란계 1수당 바닥 면적은 닭의 주령, 계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평사 계사에서 9마리/m² 이하가 적절합니다. 케이지 사육 시는 바닥 면적을 0.075m²/마리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 육성계의 경우 100일령까지 케이지에서 0.025m²/마리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경우 평사 및 방목장에서 1m²당 7마리 이하를 권장하며, 이때 산란장소 면적과 방목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산란율과 계란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밀집 사육은 사육 환경을 악화시켜 수익성을 저하시킵니다. 밀도가 높으면 닭들 사이의 서열 다툼과 스트레스로 인해 산란율과 사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깃털 상태 불량, 다리 약화, 질병 전파 가속화로 계군 전체의 균일도가 저하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스트레스는 서로를 쪼는 카니발리즘을 유발해 폐사율을 높이는 등 상품성과 생존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육밀도가 높을수록 1수당 급이기와 급수기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